

19장 가이오 치하에서의 위기

1. 가이오의 왕위 승계 과정 : 로마의 황제 디베로는 그의 후계자로 그의 열여덟 살 된 손자 케셀루스와 그의 스물 다섯 살된 증손자 가이오를 공동 상속자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베로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의 원로원은 디베로 황제의 정신 이상을 구실로 유언장을 폐기하고 정권을 가이오에게 일임하였습니다. 가이오는 라인 강 군대의 유명한 사령관이었던 케르마누스키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백성들의 전국적인 환호를 받으며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그의 정권 초에는 온유한 성품과 절제, 덕망으로 백성들이 기대했던 통치를 보여주었지만, 후에 절대적인 권력으로 인해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통제력을 상실한 포악한 황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가이오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2. 아그립바의 등장과 안디바의 멸망 : 가이오 정권 초기에 그는 이전의 황제였던 디베로의 심정을 거스르게 한 이유로 투옥되어 있던 절친한 친구인 헤롯 아그립바를 석방시킵니다. 가이오는 아그립바를 석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금은보화들을 선물하고, 아그립바의 숙부 빌립이 다스렸던 영토와 아빌린(Abilene)의 북쪽 영토를 하사하며 왕의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를 본 아그립바의 누이 헤로디아는 그녀의 남편이었던 안디바에게 그에게도 '분봉왕'이 아닌 왕의 칭호를 하사하도록 황제에게 부탁할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사실 아그립바에게 그렇게 쉽게 왕의 칭호를 하사한 것과 안디바가 로마를 위해서 세웠던 업적을 모두 고려한다면 안디바의 요구는 매우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안디바는 아내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 그대로 있는 편이 낫겠다고 그녀를 설득하였으나 결국 아내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바의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디바에 대해 해묵은 원한을 가지고 있던 아그립바는 마침 황제에게 편지 쓰기를 "안디바가 지금 파르디아(Parthia)의 아르타바누스 3세(Artabanus III)와 공모하여 로마를 대적하려 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황제로 하여금 안디바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던 시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베라에 있는 안디바의 병기고에는 칠만 명의 장정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안디바는 황제가 무기고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리온(Lyons)으로 정배를 가게 됩니다. 황제는 안디바의 아내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그 재산과 권리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그녀는 황제를 조롱하며 스스로 안디바를 따라 정배를 가게 됨으로써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3.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 한편 애굽의 중심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커다란 유대인 공동체는 방백의 통치하에 그 자체의 원로원(gerousia)에 의해서 관리된 별개의 시민 자치 단체로서 여러 세대 동안 조화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던 헬라인들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야심이 있던 동화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특권에 대해 시기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

대인으로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었던 수준 이상으로 이방인의 관례들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톨레미 왕조 아래에서까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 아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악티움 해전에서 패한 이후에 애굽이 로마의 통치 하에 합병되면서 이들 간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주었던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이러한 로마의 통치에 대해 시종일관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반로마주의자들은 또한 반유대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4. 알렉산드리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갈등 : 당시 애굽의 사령관은 주후 32년에서 주후 33년 사이에 디베로 황제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로 파송된 플라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베로 황제의 치하에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민족주의자들과의 몇몇 마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무난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의 지위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그가 수 년 전에 가이오의 어머니를 고발하는 일에 참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가이오의 어머니가 판다테리아(Pandateria)로 추방되어 거기서 3년 후에 굶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의 친구였던 마르코가 근위 사령관으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지만, 그의 친구 마르코마저 가이오의 변덕에 의해 희생되어 버리자, 플라쿠스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인 나머지 유대인들의 충성심에 대한 결의문을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심정의 플라쿠스에게 마침 알렉산드리아의 반유대주의 헬라인들이 접근하여 만약 반유대주의적 정책을 체결해 준다면 그가 가이오에게 가장 호의적으로 보이도록 협조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가련한 플라쿠스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플라쿠스는 이전과는 달리 유대인들에 대해 법에 의거한 엄격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에 아그립바 왕이 그가 하사받은 지역의 영토들을 인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알렉산드리아에 들리게 됩니다. 플라쿠스의 유대인에 대한 엄격한 통치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은 때를 마쳐 아그립바에게 플라쿠스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를 보고 매우 분노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아그립바 왕을 공격적으로 모독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그 시위가 걸잡을 수 없이 도시 전체로 확장되자, 플라쿠스는 이것이 아그립바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한 두 개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성명서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은 약탈되었고 회당들도 파괴되었으며, 유대인 구역의 회당마저 침범하여 회당을 더럽힙니다.

5. 가이오 동상 건립 추진과 가이오의 암살 : 결국 이러한 조치는 플라쿠스가 황제에 의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안드로스(Andros)섬에 유배당한 후 처형됨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플라쿠스 다음으로 새로 부임한 애굽의 새로운 사령관인 폴리오(C. Vitrasius Polio)는 지난 폭동의 과정을 상세하게 조사한 후에, 각각 다섯명의 헬라인들과 다섯명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두 개의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어, 황제 앞에서 그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 두 개의 사절단은 처음으로 황제 앞에서 각각 그들의 입장을 변론하지만, 황제는 ‘너희는 나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린 적은 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바친 것은 없다.’라는 평가와 함께 유대인들의 변론을 각하합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서부의 얄니아 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합되어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가이오의

독일 출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제단을 본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그것을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들은 가이오는 그의 신성을 모독한 유대인들에게 격분하여 페트로니우스(Publius Petronius, AD 39-42)에게 명령을 내려 유대 지역으로 진군할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 가이오의 웅장한 동상을 건립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명령을 받고 진군하던 페트로니우스는 중간에 헤롯의 가족 중 몇몇과 유력한 인사들이 포함된 유대인 대표단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이오의 동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볼 경우에,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에 페트로니우스는 다시 한 번 황제에게 편지를 써 가이오의 동상 건립 계획을 연기할 것을 권면하지만 가이오는 단호히 이를 거절하고 계획대로 동상 건립을 추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때 즈음, 이 소식이 아그립바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그립바 왕은 가이오 황제의 이 계획을 듣고 매우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한 필로와 요세푸스의 세부적인 묘사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그의 황제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 계획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가이오는 주후 40-41년 겨울, 그의 몇몇 유력한 원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가이오가 죽은 뒤 근위대 장교들에 의해 새로운 일인자로 클라우디오가 추대되어 황제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오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동상이 세워졌을 뻔한 공포를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 때에 몇몇 유대 기독교인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순간'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회람합니다. 결국 그 예언은 주후 40년 이후 가이오 통치기간에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후에 우상의 물결들이 성스런 경역 내에 세워졌을 때에 재해석됩니다.